

- 주요 뉴스: IMF,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 금융 위험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
 - 뉴욕 연은 총재, 현 상황에서는 1회 추가 금리인상이 합리적
 - 미국 재무장관,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낮은 편
 - 중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18개월래 최저. 생산자물가는 하락세 완화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향후 통화정책 전망 등이 영향
주가 보합[0.0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상승[+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향후 통화정책 관련 상충된 의견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6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중단 시기 근접하고 있다는 인식 등이 반영
 유로화 가치는 0.5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예상 등이 원인
 독일은 그 동안의 연휴로 미국 3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뒤늦게 반영되며 13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7.9원, -4.3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4/11일	4/10일	전일대비			4/11일	4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08.9	4,109.1	0.0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3%	3.42%	1bp
	유럽	461.79	휴장	0.62%		독일	2.31%	휴장	13bp
	중국	3,313.6	3,315.4	-0.05%		영국	3.54%	휴장	11bp
	일본	27,923	27,634	1.05%	CDS 5y	한국	45bp	46bp	-1bp
	한국	2,547.9	2,512.1	1.42%		중국	71bp	75bp	-4bp
환율	달러지수	102.15	102.58	-0.41%	위험 지표	EMBI+	-	415	-
	유로화	1.0912	1.0859	0.49%		VIX	19.10	18.97	0.69%
	엔화	133.68	133.61	-0.05%		WTI유	81.53	79.74	2.24%
	위안화	6.8860	6.8847	-0.02%	원자재	구리	402.0	397.7	1.08%
	원화	1,322.2	1,319.7	-0.19%		금	2,003.6	1,991.5	0.6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IMF,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. 금융 위험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

- 금년 및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2.8%, 3.0%로 제시하여 이전 대비 모두 0.1%p 하향 조정. 최근 있었던 금융혼란 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. 지금은 금융혼란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, 결과적으로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 둔화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- 지역별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은 모두 상향(1.4%→1.6%, 1.0%→1.1%), 유로존은 상향 및 하향(0.7%→0.8%, 1.6%→1.4%), 일본은 하향 및 상향(1.8%→1.3%, 0.9%→1.0%). 중국의 경우 이전과 동일(5.2%→5.2%, 4.5%→4.5%)
- 소비자물가 상승률(연율)의 경우 미국(4.5%→2.3%), 유로존(5.3%→2.9%), 일본(2.7%→2.2%)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내년에 금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. 반면 중국은 소폭 상승(2.0%→2.2%) 전망
- 한편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 위험은 최근 6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했고,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. 특히 평균적으로는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지만, 일부 취약한 은행들의 문제가 시스템 불안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뉴욕 연은 총재, 현 상황에서는 1회 금리인상이 합리적

-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, 최근의 은행권 불안도 이러한 책무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. 현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있어야 하며, 그 이후에는 금리인상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언
- 한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금리인상 관련하여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언급. 잠재적인 금융 불안의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을 평가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
-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, 5월 FOMC에서의 0.25%p 인상 가능성(67.9%)이 동결(32.1%) 가능성 대비 높은 상황. 지난 주 발표된 3월 고용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인상 예상이 증가

■ 미국 재무장관,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낮은 편

- 엘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일자리 창출, 완만한 인플레이션 완화, 양호한 소비자 지출 등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. 최근 불거진 은행권 불안으로 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첨언
- 다만 일부에서는 구조적인 고물가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(BlackRock)

■ 유로존 4월 Sentix 투자자신뢰, 전월비 개선.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기인

- 4월 Sentix 투자자신뢰는 -8.7을 기록하여 전월(-11.17) 대비 상승. 현황지수 역시 전월비 상승(-9.3→-4.3). 러-우 전쟁, 향후 경제 불확실성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지만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관련 우려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

■ 중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18개월래 최저. 생산자물가는 하락세 완화

- 3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0.7%로 전월(1.0%) 대비 하락했으며, 이는 '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. 3월 생산자물가의 경우 연간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냈으나 전월비 대비 높은 수준(-2.5%→-1.4%)
- 중국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는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(Guatai Junan International의 Zhou Hao). 이번 발표 이후 당국의 주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

■ 중국 3월 은행대출, 예상치 상회.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이 반영

- 3월 은행대출은 3.89조위안으로 2월(1.81조위안) 및 예상치(3.30조위안) 대비 높은 수준. 비은행 대출 역시 5.38위안으로 2월(3.16조위안) 대비 증가. 이번 결과는 당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에 대출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2 현지시각 기준)

- 3월 FOMC 의사록, ECB 데 쿼도스 부총재 및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
- 미국 3월 소비자물가,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의 금융안정 대책, 위험행동 유도에 따른 악순환 초래할 우려 - Financial Times

(Crises have left us stuck in a 'doom loop' of insuring risky behaviour)

-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불안으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전면적인 파멸로 전개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. 그러나 이러한 위기 발생과 정부 대응을 통한 해결 과정은 위험에 대해 보험이 제공된다는 인식을 초래하며,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유발
- 특히 이번과 같은 당국의 위기 대응은 비용부담 증가로 귀결. 정부 주도의 안전망은 인플레이션과 정부부채 증가를 초래. 또한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효과적인 시장경쟁의 원리를 저해. 이에 금융 전반에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

■ 글로벌 금융 여건, 높은 수준의 국채수익률 장기화 가능성에 직면 - Financial Times

(Get ready for the great unwinding)

- 최근 SVB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은 과거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시대의 종료를 의미할 소지. 이제는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및 국채수익률 유지라는 금융환경의 장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
- 높은 국채수익률 장기화 시 위험자산 투자는 위축될 전망. 1965년~1981년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이 급등(4.2%→15.8%)했을 당시 다우지수의 변화는 매우 제한적
- 이러한 상황은 여타 분야에서 문제를 초래할 우려. 작년 영국에서는 국채수익률 급등으로 연기금이 부채연계투자(Liability Driven Investment) 관련 위기상황을 경험. 이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에도 변화가 필요

■ 미국계 은행, 최근의 불안 사태 이후 실적 악화 가능성에 직면 - Reuters

(Wall Street bank earnings under pressure after crisis)

- 미국계 은행들은 은행권 불안 이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. 4/14일부터 발표되는 미국 6대 은행의 1/4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% 감소할 전망. 아울러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과 경기둔화에 따른 대출 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총당금 추가 압박 부담도 가중
-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수준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, 이에 은행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향후 수개월 동안 지속될 소지

■ **중국의 새로운 은행감독기구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초래 - Financial Times**
(China's banking regulators are caught between Beijing and its regions)

- 그 동안 중국은 통일된 규제기관과 명확한 대응 매커니즘의 부재를 경험. 이에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기관(금융감독관리총국)을 설립. 당국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위기 대응을 도모
-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책임 배분이 잘못될 경우 경제신뢰도 타격 및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할 우려. 특히 최근 감독체제의 변경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적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소지가 다분
- 이미 지방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문제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. 이에 중앙정부는 위기 해결을 주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

■ **글로벌 금리인상, 최빈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 - Financial Times**
(Poorest countries find finances under pressure from higher rate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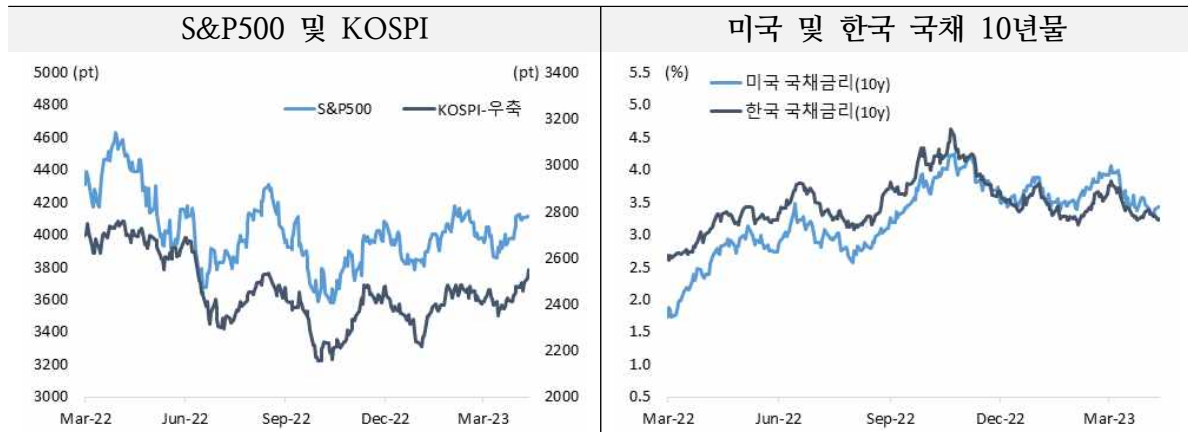
- Debt Justice에 따르면, 전세계 91개 최빈국이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할 대외부채 상환액은 '23년과 '24년에 평균적으로 정부수입의 16%, 17%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이들 최빈국이 국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국내부채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.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 연내에 상환해야 할 국내 부채는 GDP의 27% 수준(대외부채는 국내총생산의 9.8%). 대내외 부채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채무탕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소지

■ **주요국의 통화공급량 감소, 강력한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 가능성 시사 - 블룸버그**
(Tumbling Money Supply Alarms Economists Who Foresaw Inflation)

■ **미국 재무부, 고금리에 따른 연준의 손실 등으로 국채발행 확대할 소지 - 블룸버그**
(Fed Operating Losses Seen Growing With Higher Interest Rates)

■ **일본 경제, 수요 촉진 위해 민간의 초과 저축을 투자로 전환할 필요 - Financial Times**
(Japan, Germany and the challenge of excess saving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